

현대 사회에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갈등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었다. 이는 때때로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감한다는 것은 주체가 스스로 타자와 공통된 상상을 할 때, 그 상상의 결과가 폭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의 워딩턴은 이러한 공감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준다. 워딩턴은 강도에게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했다. 이에 워딩턴은 용서에 대해 연구하는 심리학자임에도 강도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워딩턴이 스스로 자신에게도 강도와 같이 폭력적 본성과 죄성이 있다고 깨달은 순간, 강도를 용서했다. 이는 워딩턴이 강도에 대해 공감을 했기 때문이다. 워딩턴은 스스로 강도의 상태를 내것으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가 용서로 이어졌다.

이러한 워딩턴과 달리 (가)의 아이히만과 (다)의 아킬레우스는 대상에 대해 공감하지 못했다. (가)의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학살했다. 이는 아이히만이 주체적인 판단없이 국가의 명령에 좌우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 이는 아이히만이 유대인의 힘든 상태와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히만의 공감은 두 요건을 성립시키지 못해서 폭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아킬레우스는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상태에 대해서만 공통된 상상을 했다. 감정에 대해서는 공통된 상상을 하지 않았다. 이는 주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다른 상상을 공유하면 폭력을 불러일으켜 공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볼때, 공감은 워딩턴의 사례처럼 공감의 요건과 결과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워딩턴의 사례 처럼 공감을 발생시켜야함을 알 수 있다. 즉, 아이히만과 아킬레우스가 보여준 공감하지 않는 모습을 지양해야한다는 것이다.(971자)